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8. 27.(화) 11:00,
(지면) 2024. 8. 28.(수) 초간

배포 2024. 8. 27.(화) 06:00

2024년도 항만시설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

- 사용자 중심의 유지보수 정책 및 효율적인 항만시설물 관리방안 수립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오는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항만 이용자 대상으로 항만시설물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

해양수산부는 동 만족도 조사를 2011년부터 매년 항만시설 사용 및 유지보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. 올해는 전국 주요 22개* 항만의 관련 업체, 어업종사자 및 일반 이용자(여객, 지역주민) 등 2,2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

* 국가관리무역항(14개항) : 부산항, 경인항, 인천항, 광양항(여수항), 마산항, 울산항, 동해-목호항, 군산항, 목포항, 포항항, 평택·당진항, 대산항, 장항항

국가관리연안항(8개항, 상왕등도항, 국도항, 가거항리항 제외) : 용기포항, 연평도항, 흑산도항, 거문도항, 후포항, 울릉항, 추자항, 화순항

특히, 항만시설 사용자가 항만시설 이용의 편리성, 유지보수 만족도, 환경적 만족도(청결, 편의시설 적절 배치 등) 등 항만시설물 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설문 내용을 작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“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 및 각종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항만시설 유지관리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항만국	책임자	과 장	황상호 (044-200-5930)
	항만개발과	담당자	사무관	이귀섭 (044-200-6010)